

주체, 황달, 헛배 부를 때

1

주체(酒滯), 황달(黃疸), 안면과 온몸에 황종(黃腫)이 나가거나 헛배가 부를 때

돼지 뒷덜미 살코기 1냥중(37.5g)을 질척질척하게 찢고 감수(甘遂)가루 1돈중(3.75g)을 넣어 다시 찢은 뒤 등그스름하게 만들어 세 겹의 습한 종이로 잘 싸다. 이것을 잣불 속에 묻고 익힌 다음 꺼내서 종이를 벗기고 반(半)을 식후 한 시간 후에 술을 약간 탄 물로 복용하면 된다. 한 번에 3회분을 만들어 매일 3회씩 상복하면 매우 효력이 있다. 복용중 간혹 설사를 하는 수가 있으나 염려할 것은 없다.

“

돼지고기를 먹을 때
조엽, 상백피, 곶랑강,
백두구, 육두구, 또는 천초가루를
섞어 먹으면 모든 병의
발생을 방지한다.

”

2

후종통(喉腫痛)이 나서 터진 데

돼지골 1개를 술에 잘 찢 다음 생강가루와 식초로 버무린다. 뇌 한 개가 1일분이므로 이것을 3~5회로 나눠 나올 때까지 복용하면 된다. 중(重)한 사람은 뇌 여러개를 더 먹으면 매우 효력이 있다.

3

경풍(驚風), 간질(癇疾), 전광증 또는 정신병(精神病)

돼지염통의 피 반(半)컵에 보드라운 주사(朱砂)가루를 넣어 따끈한 물로 복용하되 매일 아침, 점심, 저녁마다 한 번씩 상복(常服)하면 매우 효력이 있다. 또 주사가루를 작은 돼지 염통과 함께 넣어 찢 다음 상복해도 좋다. 주사(朱砂)의 양(量)은 3돈중(약 12g)을 쓰지만 연령이 어려짐에 따라 감해야 한다.